

■■■의 자아에 대한 자전적 분석의 탐색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2022.03.20.

차례

1. 초록
2. 고지사항
3. 정상
 - 3-1. 기본 사항
 - 3-2. 심리검사
4. 행동
 - 4-1. 소명
 - 4-2. 수강 과목
 - 4-3. 인상 깊게 본 유튜브
 - 4-4. 작성한 글
 - 4-5. 읽은 책
 - 4-6. 듣는 노래
5. 사건
 - 5-1. 뿌리를 찾아서
 - 5-2. 구글 맞춤 광고
6. 결론

초록

이 유사 연구 보고서(Pseudo Report)는 한 학생의 자아에 관한 글이다. 유사 연구 보고서는, 얼핏 보기엔 연구 보고서 또는 학술적 글쓰기(Academic Writing)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술적인 엄밀성 없이 쓰인 글을 의미한다.¹⁾ 즉, 여기에 있는 글은 극도로 주관적이며, 학문적 진지함이나 엄중함을 결여하며, 심지어는 기본적인 인용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어찌면 거짓말까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이러한 일은 거의 범죄로 취급받지만, 과제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없으므로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글을 처벌할 수 없다. 어쨌든 이 글은 한 학생의 자아를 분석하는 과정 그 자체이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양적, 질적 측면에서 그의 자아를 파편적으로나마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측면을 “정상”, “행동”, “사건”의 세 가지 분류로 분류한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로 연구 대상을 일정 수준 파악할 수 있었다. 비록 이 분석 과정은 그의 모든 면모를 분석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부분의 합이 곧 전체라는 것은 심각하게 소박한(Naive) 전제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 글은 연구 대상에 대한 하나의 통찰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고지사항

이 글을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가 읽게 된다면 이하의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글은 여러 측면에서 연구 대상에 대해 분석한다. 다만, 글의 제목이 “분석의 탐색”인 것처럼 대상의 분석 자체보다는 분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각 측면의 말미에는 의의와 제언을 통해 추가적인 설명과 차후 분석의 가능성을 덧붙인다. 또한, 이 글은 그를 물화²⁾하기 위해 “연구 대상”

1) 조금 전에 막 만들어진 개념이다.

2) 기본적으로 물화란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대상의 인격을 부정하고 하나의 사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글에서 물화는 일종의 “거리 두기”에 가깝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동일성을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기 위한 (연구) 대상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이 글은 그 특징상 연구 대상에 대한 민감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유의할 것은 당연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글의 내용을(특히 구체적인 사항이나 수치 따위를) 읽자마자 잊어버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과 관련된 여러 양적, 질적 자료를 실제 첨부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극도로 개인적인 정보들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유사 연구 보고서에서도 윤리 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인 노트북에만 “myself.xlsx”로 저장되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성상

성상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사용하느냐, 사물에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려대한국어사전). 사람에게, 성상이라는 단어는 성질과 행실을 의미한다. 반면 사물에게 사용했을 때 이 단어는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연구 대상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물화를 통해 연구 대상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사물로 간주하여 성질이나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본다. 이때, 성상은 객체의 속성(Property)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로 따지자면 용언(또는 술어) 중 형용사로 표현되는 부분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기본 사항

체장 ■■■.■cm, 체중 ■■.■kgf, 허리둘레 ■■■.■cm, 시력 (■.■, ■.■). 이것은 연구 대상의 기본적, 생물학적 특징이다. 이것은 크게 특기할만한 수치는 아니다. 병무청, 통계청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대 남성의 평균적인 신체적 수치는 체장 170cm 중반대, 체중 70kg 중반대, 허리둘레 80cm 초반대, 시력 1.0 정도(좌안 기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 대상의 신체적 수치는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며, 다만 조금 깡마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와 제언

이러한 사실은 큰 정보(적어도 한눈에 통찰을 제공하는 그런 분류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였을 때 파괴력이 강한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상기 사항에 대한 종단적 데이터는 연구 대상의 신체적 성장이나 관련 사건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는 연구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기 좋은 방법이다. 다만 전문적인 심리검사는 대체로 유료이며 실시하기에도 까다로워, 여기에서는 간단한 검사이면서 연구 대상이 지금까지 수행한 적 있는 MBTI, U&I 학습유형검사, 에니어그램, Big5를 통해 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단 연구 대상의 MBTI는 INTP(아이디어 뱅크형)로 나타난다. 다만 P에 대한 선호분명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상의 U&I 학습유형은 학습성격 유형 탐구-이상형, 학습행동 유형 잡념-외곶형으로 나타난다. 대상의 에니어그램은 5w6(사색가-해결사형)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의 Big5 결과는 O4, C3, E3, A2, N4로, 상상력, 걱정, 우울, 호기심 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종합한다면, 연구 대상은 사교적이기보다는 독립적이며, 논리성과 독창성을 강조한다. 일종의 호기심에 차 있는, 관심분야에 빠져드는 경향이 강한 사람인 셈이다.

의의와 제언

전문가와외 상담이 동반되지 않은 심리검사는 대체로 큰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인터넷을 통

해 수행하는 간단한 심리검사는 어디까지나 참고의 역할일 뿐이며, 많은 심리검사가 아직 신뢰도, 타당도 측면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MBTI와 학습유형검사에 대해서는 간략한 상담을 받은 적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결과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런 키워드들을 취합하여 분석하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것이다.

행동

행동은 성상과 달리, 모종의 동사적인 측면을 지닌다. 따라서 이것은 용언(또는 술어)에서 동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며, 연구 대상의 주체적인 행동이 포함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행동은 주체성을 가진 행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는 행위(Action)에 가깝다. 다만, 여기에서는 연구 대상을 물화하고 주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행동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또한, 여기에 있는 측면들은 모두 행동주의적인(Behavioristic)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관찰되는 행동으로 연구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행동은 객체의 동작(Method)이 된다.

소명

소명(Calling)이란 직업(Occupation), 직무(Job), 또는 의무(Duty) 등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직위상 주어진 의무를 일컫는 말이다. 연구 대상은 기본적으로 학생이지만, 거기에 더해 몇 가지 의무사항을 갖는다. 첫째, 그는 근로장학생으로, 대학 근처의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둘째, 그는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9분반 멘토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주 두 명의 학생에게 1시간 30분씩 각각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원격 교육 플랫폼 선택의 강사이다. 여기에 대해 특기할 만한 점이라면 세 가지 일이 모두 주로 앉아서 하는(Sedentary) 일이며, 교육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대상의 소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돈 받고 하는 일과 내가 선택한 일은 열심히 한다.”³⁾ 여기서는 일종의 소명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에게 소명이란, 생의 유지에 있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필수적이며,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의와 제언

연구 대상의 소명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일종의 직업 정신 내지는 소명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명 의식이 (상기 각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회 가치의 내면화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과연 어떠한 가치로부터 직업 정신이 도출되었을까?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자본주의 정신의 모태로, Schumpeter는 기업가 정신을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보았다. 하지만 개인에 대해 분석할 때 이런 거시적인 틀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역사성을 지닌 이론은 현대에 잘 들어맞지 않기도 한다.⁴⁾ 따라서 이러한 직업 정신의 등장에 관해 미시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3) 물론 개인이 온전히 선택하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내면화하였는가에 따라 직무에 대한 통제감이 달라진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택한 일”은 내면화한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 Weber의 주장은 역사적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태동과 성장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자본주의의 존속은 철장과 같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As it is)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거시적 역사성에 힘입어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러한 관성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미시적이고 현대적인 삶이나 주체에 대한 설명력은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고작해야 Marx의 말을 빌려 “노동은 노동자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한다”라고만 하는 것은 빈약한 설명이다.

수강 과목

또 하나의 측면은 바로 대학의 수강 과목 및 성적 상의 특징으로 연구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 대상이 수강한 과목 중 가장 많이 수강한 학과(또는 분야)의 과목은 사회였으며, 다음은 정보, 다음은 철학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역사와 문학에 해당하는 과목 역시 존재했다. 사회학과 학생이 사회와 관련된 과목을 듣는 것은 의외인 것은 아니다.⁵⁾ 또한, 그는 컴퓨터학과에 이중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 계열 과목을 수강하는 것 역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 외에 철학과 역사⁶⁾, 문학이라는 범인문적 흥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또한, 수업 시간대를 아침, 오전, 낮, 오후, 저녁으로 분류했을 때, 40%가량의 강의가 오후 시간대에 분포하고 있다.

의의와 제언

수강 과목은 종단적 데이터이므로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대상의 특징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영역에서 성적이 높게 나왔는지 역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데이터의 크기 N이 작은 편이며 여러 양적으로 코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런 점에서 질적 연구를 통해 각 강의를 수강한 이유를 파악하거나, 과목 간 강의시간의 군집화된 정도 측정, 강의평과 연동한 분석과 같은 참신한 양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 깊게 본 유튜브

연구 대상은 협업 및 기록 프로그램인 노선을 통해 여러 가지 자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상 깊게 본 유튜브 동영상들의 목록이다. 현재 총 36개가량의 영상으로 구성된 이 목록은, 단순히 유희로 재밌게 본 것을 넘어, 여러 통찰을 제공하는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무작위로 뽑아 본 영상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hangman is a weird game”, “한류는 언어 걸린 성공일까? (feat. 오징어게임, BTS)”,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그림”, “위인들은 모두 좋은 사람일까? | 동심 파괴 위인들의 깨는 인성”, “[그대에게] 영터리 세대론, M과 Z는 다르다 / YTN”, “[도깨비의 메타버스] 메타버스 아세요? 저도 몰라요ㄱ 들어도 모르겠어요ㄱ”. 영상의 주된 분야는 시사, 대중문화, 기술, 컴퓨터 과학 등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이 해당 영역에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의의와 제언

기본적으로 영상은 여러 시청각 자극으로 이루어진 매체이다. 따라서 이들은 분석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어(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영상들의 대본(텍스트)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영상의 댓글을 분석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작성한 글

연구 대상은 종종 스스로만 볼 수 있도록 협업 및 기록 프로그램인 노선에 짧은 글을 남기기도 한다. 일종의 다이어리인 셈이다. 그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견해가 잘 드러나는 글이 많

5) 물론 연구 대상이 사회학과 학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 이것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6) 양적으로 이것은 “역사”로 코딩되었지만, 연구 대상에 따르면 그는 역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역사라기보다는 “신화”로 간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의 말을 빌려서, 역사에 관해 그가 좋아하는 것은 “Myth이지 Logos가 아니다.”

은데,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글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의 글 중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가 있는데, “냉담자”⁷⁾,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⁸⁾, “원손잡이와 소아성애자의 정치적 올바름”⁹⁾과 같은 글은 인문사회학적인 내용을 다룬다. “청소년 음주에 대해”¹⁰⁾ 등의 글은 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일종의 상동행동” 같은 글은 문학이다. 그 외에 여러 일상의 문제 해결이나 추후의 글쓰기, 코드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남겨 두기도 하며, 단순히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도 많다.

의의와 제언

역시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방법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글은 실제 연구 대상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간접적인 텍스트 데이터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확률이 눈에 띄게 높을 것이다. 소박한 관찰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로는, 많은 글이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시사에 관한 글마저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연구 대상의 그다지 높지 않은 사회성과 행동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사회성과 행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¹¹⁾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읽은 책

연구 대상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종종 읽었다. 학창 시절 도서부였으며 종종 다독왕에도 선정되었을 정도이다. 그가 좋아하는 책으로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마크 트웨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있다. 다만 그가 소위 “인생 책”이라고 부르는 도서는 “어린 왕자” 한 권이다. 안타깝게도 2019년 이전에 그가 읽은 책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2020년부터 읽은 43권의 책에 대해서는 기록이 존재한다. 그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며, 가장 최근에 다 읽은 책은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이다.

의의와 제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각 도서의 원문 데이터를 요구하므로 어려울 수 있다. 도서를 몇 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연구 대상의 선호를 파악하거나, 도서(또는 작가) 간의 망을 분석하여 연구 대상의 도서 지도를 그리는 등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혹은 도서를 소개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¹²⁾ 분석할 수도 있다. 소박한 관찰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다른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인문, 사회, 문학, 기술,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읽는 책의 분야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7) 냉담자는 원래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세례를 받았으나 신에 대해 냉담해진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다. 그는 사회 자체를 하나의 종교로 보았을 때(이 부분은 Harari의 영향이 엿보인다),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실망으로 대화와 연대,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 사람을 냉담자라고 지칭하였다.

8) 원인이 결과에 후행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주체가 결과에 대해 붙이는 이유는 실재하는 이유와는 다르므로 이러한 인과 관계는 애초에 주체의 인식 세계 내에서만 성립하는 도식이고, 따라서 주체의 인식 세계 내에서 결과가 원인에 선행하였으므로 원인은 결과에 후행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9) 정치적 올바름, 나아가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정의에 대한 모형이 비윤-편익 모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나 그는 여러 글에서 “완벽한 규칙은 완벽한 세계에서만 성립한다”라며, 일반의 인식 체계가 모순적이므로 무모순적인 정의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한다.

10) 법적으로 청소년 음주의 합석 문제를 다룬 글이다. 까마득한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입장해서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와 갓 성인이 된 학생과 빠른년생 등의 사유로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이 함께 입장해서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의 법적 해석에 관한 짧은 고찰이다.

11) 이를테면 사회적 지지수준(Social Support, SS)과 같은

12) 이러한 데이터는 알라딘, 예스24 등 서점 사이트에서 쉽게 크롤링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고르게 책을 읽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듣는 노래

연구 대상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튜브 음악을 사용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재생목록을 만들어 자주 듣는 노래들을 30개가량의 범주로 분류한다. 각 재생목록에는 공통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이름 대신 재생목록 번호가 붙어 있지만¹³⁾ 이런 곡들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는 별개로 개인화된 맞춤 믹스를 제공한다.¹⁴⁾ 이런 믹스 목록을 분석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유튜브 뮤직은 각 해가 끝날 때 해당연도 요약(Recap)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그가 2021년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쏘예플의 “로마네스크”, 신나는 분위기를 원할 때 들은 노래는 솔루션스의 “Ticket to the Moon”, 휴식을 취할 때 들은 노래는 슈가헤잇의 “그냥 집에 가자”였다. 이를 통해 2021년 연구 대상은 대한민국 인디 록을 주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의와 제언

어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역시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마다 제공하는 음악의 범위와 강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은 음과 가사로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데, 음은 코딩하기 어려운 양적 데이터이지만, 가사는 텍스트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연구 대상은 나름 광범위한 분야의 음악을 듣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가 즐겨 듣는 가수들의 망이 어느 정도로 좁은 세상(Small World)인지 확인해보는 것 역시 유의미할 것이다.

사건

사건이란 성상에도, 행동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것은 연구 대상 자체의 특성(Attribute)이라기보다는, 연구 대상이 살아온 역사적 지형, 즉 연구 대상에 외재하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은 형용사인 성상, 동사인 행동에 이어 피동(수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연구 대상은 술어의 주체(주어)가 되기보다는 대상(목적어)이 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의 주체(Agent)로서의 입지는 약해지고, 다만 개인적, 사회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존재로서 다루어진다.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는 대한민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자신의 유년~청년 시절을 겪은 장소들에 직접 찾아가 추억을 회고하는 콘텐츠이다. 이와 유사하게, 연구 대상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이동 과정을 통해, 그의 지리적 근간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그의 출생은 대한민국 ■■■■시 한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이후 그는 ■■■으로 이동한다. 이를테면 그는 유년 생활을 일종의 이민자로서 한 셈이다. 이후 그는 다시 대한민국 ■■■로 돌아와 초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는 같은 위치

13) 일종의 Unlabeled Data와 유사하지만, 결과적으로 곡들이 분류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군집화된(Clustered) 것에 가깝다. 또한, 이 번호들은 완전 무작위적인 것은 아닌데, 인접한 번호의 재생목록 끼리는 유사한 특징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1.4, 1.5, 1.6번 재생목록은 모두 한국 힙합에 가깝고, 2.0~3.0번은 모두 한국 록에 가깝다.

14) 연구 대상의 경우 7개의 믹스가 존재하는데, 각각 한국 록, 한국 대중음악, 일본 경음악, 영미 팝, 영미 록, 한국 인디, 가사가 없는 뉴에이지나 엠비언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종종 변하며, 실제로 각각의 믹스에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의로 붙인 것이다.

에서 ■■ 토박이로 생활한다. 그 이후 대학교에 들어서며 처음 집을 떠나 ■■■■■시 ■■구 ■■동의 기숙사에서 살게 된다. 연구 대상은 첫 상경 생활에 비교적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에 있는 ■■사단 ■■연대 ■■■ ■■■■소대로 근무하게 된다. 제대한 그는 다시 ■■로 돌아갔다가, 복학하면서 ■■■■■시 ■■■구 ■■동에 새로운 자취방을 구하게 된다. 현재 그는 거기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

의의와 제언

그의 이동에서 가장 큰 특징은 유년 시절의 이민자적 특성이다.¹⁵⁾ 특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가 유년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이는 그의 언어적, 문화적 행동이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사회 국제 이동의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민자적 특성이 연구 대상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유년 시절은 그의 개인적 정체성 형성은 물론이요,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적 특성은 식생활에서 그 부가적인(Additive)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그는 두리안, 망고스탄과 같은 특이한 열대 과일, 화권 튀김이나 진주차(버블티)와 같은 간식, 그 외의 다양한 ■■을 상당히 좋아한다. 윤인진에 따르면, 기존 이민자 연구는 사회심리와 같은 개인적 측면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연구 대상의 이민자성에 대한 미시적 연구¹⁶⁾ 역시 가능할 것이다.

구글 맞춤 광고

구글은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사용자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분류하여 맞춤 광고를 보여준다. 또한, 계정 설정에서 이 분류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이 분류는 어쩌면 성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의 외부성에 초점을 맞춰 사건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그럼 연구 대상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을까? 일단 연구 대상의 구글 계정은 2개이다, 개인용 계정과 대학과 연동된 계정이 그것이다. 두 계정을 살펴보면 개인용 계정에 212개, 대학 연동 계정에 80개로 총 300개 가까이 되는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개중에는 “도시 대중교통”, “고양이”, “동아시아 음악”, “컴퓨터 과학”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분류부터, “양육”, “쿠웨이트”, “결혼식”과 같이 연구 대상과는 거리가 먼 분류까지 존재한다.

의의와 제언

구글 맞춤 광고는 그 자체로 양적 데이터 분석의 정수이다. 개인적으로 생산했지만 동시에 접근이 어려운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력한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한 계정에서는 “가계 수입: 상위”, “싱글”, “개”, “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지만, 다른 계정에서는 “가계 수입: 중하위”, “연애 중”, “고양이”¹⁷⁾, “세입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데이터가 항상 믿을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

15) 연구 대상의 부모가 타국에서 직장을 얻고, 인간관계를 형성했으며, 동시에 연구 대상 역시 타국에서 장기간 미취학 시기의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를 이민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6) 다만 이런 연구는 주제 상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기보다는 질적 방법론이 적합할 것이다.

17) 사실 개와 고양이는 다른 항목과 달리 그다지 배타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흔히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상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문화가 존재하기에 여기에 대한 약간의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연구 대상을 2개의 성상, 6개의 행동, 2개의 사건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연구 대상은,

성상

기본 사항 : 신체적으로 깡마른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평범한 20대 남성이다.

심리검사 : 독립적, 논리적, 독창적, 창의적이다.

행동

소명 : 주로 앉아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며 직업의식을 지니고 있다.

수강 과목 : 사회학과 학생이며, 컴퓨터학과 이중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상 깊게 본 유튜브 : 시사, 대중문화, 기술, 컴퓨터 과학 등에 관심 있다.

작성한 글 : 현실에 유리되고 이론적인 글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

읽은 책 : 인문, 사회, 문학, 기술, 컴퓨터 등 관심 분야 내에서 골고루 책을 읽는다.

듣는 노래 : 다양한 분야의 노래를 들으며 주로 국내 인디 록에 관심이 많다.

사건

뿌리를 찾아서 : 유년기를 이민자로서 보냈다.

구글 맞춤 광고 : 구글 맞춤 항목에서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분석이 실제 존재하는 연구 대상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관심 분야의 일관성과 성격적 특징을 고려했을 때, 연구 대상의 특정 요소를 추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실제 개인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소박한 추측이지만, 이러한 탐구 분석 과정을 통해 차후 연구 대상의 자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개념의 활용에 있어서, 그것이 핵심이 되기보다는 일부 측면에서 결다리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 삶의 지형을 거시적인 사회 이론¹⁸⁾에 역지로 적용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영역에서 활용하여 개인인 연구 대상을 사회와 연결짓는 일종의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을 찾으려 한 것으로 파악하면 좋을 듯하다.

18) 비록 사회학 자체는 미시적인 측면을 포함하지만, 행위자보다 그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한 사회학은 필연적으로 일반화와 같은 거시적 측면을 포함한다.